

일 주 문

종지형 공동대표의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9일 AW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도법 스님, 인드라망 월례법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3월 19일 서울 신정동 인드라망교육도장에서 '화엄경' 제주묘엄품과 마을공동체 월례법회를 개최한다.

방글라데시 평화합금대상 수상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가 2월 23일 방글라데시 체이크 하시나 수상으로부터 아디샤 디방가라 평화합금대상을 수상했다.

현장 스님 사회복지학 박사
대구 입후사 주지 현장 스님은 서울 한성대에서 '노인의 여가 스포츠 활동이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연구'를 주제로 사회복지 분야의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상진 동국대 교수 세계인명사전 등재
박상진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는 3월 8일 ABI(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등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됐다.

이경섭 대한전립선학회 회장
이경섭 동국대 경주병원 비뇨기과 병원은 3월 5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대한전립선학회 총회에서 2년 임기로 대한전립선학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인사> 천대중 사회복지장 안산 스님

천대중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7일 인사를 단행, 총무원 사회복지장에 안산 스님(56)을 임명했다. 안산 스님은 1981년 구인사 입산 이래 진주 월경사 주지, 천대중의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9년부터 서울 삼통사 주지직을 수행하고 있다.

<인사>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해용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10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에 해용 스님을 임명했다. 해용 스님은 1991년 성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합평 용천사 주지,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총무원 사회국장 등을 역임했다.

만해대상 수상자

제15회 만해대상 수상자에 아누라다 코이랄라 마이티 네팔 재단이사장 등 4명이 선정됐다. 만해대상실천선양회(총재 자승)는 2011 만해대상 수상자로 △평화부문의 코이랄라 이사장을 비롯 해 △실천부문 스리랑카 고고학자 시리세나 반다 헤티아라치 박사 △문학부문 소설가 모엔(莫言), 이근배 시인 등 4명을 선정했다.

성매매로부터 네팔 여성 인권 지켜와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



아누라다 코이랄라 (마이티네팔 재단 대표 · 62)

아누라다 코이랄라(Anuradha Koirala)는 네팔 카트만두에 소재한 마이티네팔(Maiti Nepal) 재단이 이사장이다. 전직 영어교사인 그는 성매매로 인권을 착취당하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투쟁을 벌이는 인권운동가다. '어머니의 집'이라는 뜻의 인권단체인 마이티네팔을 이끌며 1993년부터 지금까지 1만 2000명 이상의 여성과 소녀를 구한 코이랄라는 단순히 소녀들을 구조하는 것을 넘어 의료와 교육, 애정을 제공하는 안식처를 만들었다. 코이랄라는 방 2개로 단체운동을 시작, 현재 29개 국내 지부와 전 세계의 후원 네트워크를 갖춘 조직으로 이끌고 있다. 코이랄라가 폭력과 인권침해에 노출된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개인사에서 비롯됐다. 남편의 구타로 세 번이나 유산을 했지만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지 몰랐다. 폭력 희생자들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재판을 돕는 것이 마이티네팔의 출발이었던 것.

이후 마이티네팔의 사업은 인도에 성노예로 팔려가는 어린 네팔 소녀들을 구조하는 것으로 확장됐고, 마이티네팔은 성매매 업소를 급습하거나 국경을 순찰하면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네팔로 돌아온 피해자들에게 심리와 재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코이랄라는 인도로 성노예추방미션 여행을 할 때는 보디가드들의 호위를 받지 않고서는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개인적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코이랄라의 헌신적 활동을 본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의 활동을 돕고 있다. 봉사자들은 성매매를 하는 젊은 여성과 어린 소녀들을 구조해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코이랄라는 공로를 인정받아 △네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2004·2005) △세계 평화종교연합 평화대상(2007) △스페인소피아 여왕상 은메달(2008) △UN 네팔 여성위원회 감사패 △CNN 올해의 영웅(2010)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고대 인도언어 정통한 세계적 석학

만해대상 실천부문 수상자



시리세나 반다 헤티아라치 (스리랑카 학자 · 72)

시리세나 반다 헤티아라치(Sirisena Banda Hettiaratchi) 박사는 스리랑카의 저명한 역사·고고학·불교학자이다. 그는 불교적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소양을 길러오면서도 영국의 현대학문 방법에 의한 동서 신구학문의 내용을 쌓았다. 헤티아라치 박사는 스리랑카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1970년대 초, 런던대의 동양학 및 아프리카 학부에서 세계적인 동양학자인 석학 케스파리스(J.G. de Casparis) 지도 교수 밑에서 고도의 학문적 수업을 5년간 쌓아, '고대스리랑카의 사회와 문화의 역사'라는 연구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귀국후에는 대학교수로서 평생 학문 연구와 강의 그리고 고고학 발굴로 일생을 보냈다. 헤티아라치 박사는 그동안 <고대스리랑카

의 사회와 문화의 역사>를 비롯해 20여 권의 중요한 저술을 했으며 8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스리랑카 최고 고고학자로서 위치를 다졌다. 특히 그는 5세기 중국의 구법승 법현이 쓴 <불기(佛國記)>에도 등장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무외산사(無畏山寺)인 아바이아리 비하라(Abhayagiri Vihara)에 대해 연구하기도 했으며 이 방면에서는 제1인자로 정평이 나왔다. 불교사와 고고학 연구분야에서 헤티아라치 박사가 이룩한 성과 중 특히 주목할 분야는 그가 유명한 아소카 명문에 새겨진 브라흐미 문자를 해독했다는 것이다. 아소카대왕은 고대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왕으로 통일전쟁 후 여러 곳에 석주를 세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호하는 직령을 세웠다. 이 아소카 직령이 새겨진 석주와 암각 등에 발굴된 것은 1세기가 넘는다. 그러나 이 직령의 문자인 브라흐미 문자를 해독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몇 명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빨리어와 산스크리트어 프라크리티어 외에 고대 인도 언어에 정통한 헤티아라치 박사의 학문 활동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아시아 문학 위상 알리는데 큰 역할

만해대상 문학부문 수상자



모엔(중국 소설가 · 55)

모엔(莫言)은 현대 중국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해외에 널리 알려졌으며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도 친숙한 이름이 됐다. 단편소설 <봄밭에 내리는 소나기>로 등단한 그는 1987년 대표작인 장편소설 <홍가오량 가족(紅高粱家族)>을 발표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작품의 일부는 장에모 감독이 영화 '붉은 수수밭'으로 제작해 1988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수상하면서 모엔의 작품이 전 세계 20여 개국으로 번역·출간되는 계기가 됐다. 모엔은 이후 장편소설 <열세 걸음(十三步)> <술의 나라(酒國)> <풀을 먹는 가족(食草家族)> 등을 연달아 발표했다. <환락>을 비롯한 주목할만한 중단편소설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엔 문학의 매력은 중국현대사의 소용돌이를 뚫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적나라한 실상을 대륙적인 힘으로 장엄하게 풀어가는 통렬한 재미에 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서 중국적인 허풍과 과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기상천외한 상상력의 세계를 펼친다. 모엔의 장기(長技)가 돋보이는 <인생은 고달파>는 여러모로 주목되는 작품이다. 악덕지주로 몰려 총살당한 서문촌의 지주 서문노가 나귀, 소, 돼지, 개, 원숭이, 사람으로 거듭 환생하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이 소설은 <삼국연의>나 <수호전>과 같이, 중국의 전통적인 장회체(章回體) 형식을 취하고 있다. 50년이라는 장대한 역사를 다면적 시각으로 폭넓게 그리기 위해 '유희'라는 불교적 상상력을 끌어들이는 점도 치밀하게 계산된 서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유희의 순환체계에 착안해, 중국 현대사 50년의 소용돌이를 해쳐온 인간들의 고투(苦鬪)를 장쾌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작가적 역량은 높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모엔은 최근 들어 한국에서 개최하는 '동아시아 문학포럼' '한중 문학인대회' '세계작가 문학포럼' 등에 계속 초청돼 한국작가들과의 연대감정도 열정적으로 나누어 갖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화적 작가이기도 하다.

詩歷 50년, 한국시 정체성 살려

만해대상 문학부문 수상자



이근배(시인 · 71)

이근배 시인은 1961년 경향, 서울, 조선, 신춘문예에 시조로 당선된 이후 △1962년 동아(시조) △1962년 조선(동시) △1963년 제2회 문공부 신인예술상 시부 수석상, 시조부 수석상 △1964년 한국일보 시 당선 △1964년 제3회 문공부신인예술상 문학부 특상(시)을 받으며 올해 시력 50년을 맞는 동안 시조와 시쓰기에 힘 없이 달려왔다. 이근배 시인은 등단과 함께 '신춘시' 동인으로 60년대 자유시단의 중심으로 나서는 한편 한국시조시인협회 창립이사(64),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위원장(73)으로 선두에서 현대시조의 중흥을 이끌어 시조연구의 확장과 시조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근배 시인은 또 엄숙한 군사통치하의 문예지 기근시대에 월간 <한국문학>을 발행, 주간을 하며 1970-80년대 한국 문학의 넓은 땅을 개간했으며 1984년에는 신문사상 최초로 장편서사시 <한강>을 1년간 한국일보에 연재, 노산 이후의 대문장이라는 평을 얻기도 했다. 그는 시조로 가람, 노산, 조운의 맥을 잇고 자유시로는 만해, 지용, 미당의 시정신을 담아내며 민족적 화두를 우리네 고유의 가락으로 엮어냈다. 이러한 그의 활발한 시 세계는 한국시조시인협회장(1994)과 한국시인협회장(2002)을 맡아 시조와 자유시가 돌이 아니고 하나임을 입증하는 큰 몫을 해낼 수 있었다. 이근배 시인은 신문학 이후 문단사의 큰 스승을 모시는 일에도 앞장서서 지용회화장을 역임했으며 오늘날까지도 공초송모회회장, 사단법인 심훈 상록수 기념사업회 공동대표, 만해시인학교교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또 중앙시조대상, 가람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육당문학상, 현대불교문학상, 유신작품상, 시와시학작품상, 고산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문인으로서의 최고 영예인 대한민국예술원회원(2008)에 선임됐다.

제13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대한불교진각종은 진각종 교학 확립과 불교 및 밀교연구 발전을 위해 '제13회 진각논문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공모분야 및 주제

Table with 4 columns: 분야, 공모편수, 주제, 비고. Rows include 진각종 교학, 불교 일반, 밀교 일반.

- ▶공모분야별 지정주제 응모자에게우선 선정권을 부여합니다.
▶응모자격 : 제한 없음
▶전행방법 : 논문계획서 1부 및 인적사항 1부 (소정 양식 : 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공모일정 : 접수 마감 - 2011년 5월 13일(금)
당선작 발표 - 2011년 6월 17일(금) 예정
당선 논문발표회 - 2011년 11월 4일(금) 예정
▶당선작 상금 : 최우수 1편 (500만원), 선정 7편 (편당250만원)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타 논문 공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 136-865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 정수현 인터넷홈페이지 : www.jingak.or.kr / E-mail : jingakrcsr@hanmail.net
전화 (02)913-0133, 0134 / 핸드폰 010-9005-0751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10·27법난피해자 피해신청서 접수공고 및위원회 사무실 이전안내

공고 제 2011-2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명예회복 및 의료지원금 신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3.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1. 피해신청 접수기간
2009. 3. 16 ~ 2011. 12. 31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나.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 10·27법난의 정의
"10·27법난"이라 함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함.
3. 신청인의 자격
가. 명예회복 신청 : 피해자, 유족(사망시), 조계종 및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4. 신청서 접수처
가.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1) 직접(방문)제출 : 일과 시간내 (09:00~18:00)
2) 우편제출 : 신청 접수기간내 도달
나. 주소 : 100-300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51-4, 동덕빌딩 9층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위원회 사무실을 전경기념관에서 조계사 인근 동덕빌딩으로 이전 ('11.3.31)에 따라 신청서 접수처 주소지가 변경됨
5. 신청서 제출서류
가.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 또는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각 1부
나. 피해경위서 1부 (신분증 사본 포함)
다. 진단서 등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각 1부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명예회복(의료지원금)신청(수령) 위임장 1부,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①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②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③ 수용자인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④ 그 밖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장
6. 의료지원금 선정기준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치료비, 개호비 및 보조장구 구입비 등 선정
7. 심의·결정 절차
관계법령에 따라 피해자등 여부사실사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사무위원회, 의료지원금신청사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신청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1027beopnango.kr)나 "10·27법난자료실" 또는 조계종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10·27법난피해자신청접수안내"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전화 02-748-5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사무실 이전안내
법난피해자와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실을 아래와 같이 이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무실 이전일 : 2011. 3. 3.
◆ 이전 장소 :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51-4, 동덕빌딩 9층 (조계사 인근)
☎ 대표전화 : (02) 748-5555
◆ 대중교통이용
지 하 철 :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 조계사 방향 100m / 도보 2분)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 방향 500m / 도보 10분)
시내버스 (안국역 하차-지하철3호선) • 지선버스(☎) : 1020, 8000, 7025
• 간선버스(☎) : 109, 151, 162, 171, 172, 606, 704, 708
※10·27 법난의 극복과 승화를 위해서는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